# 포르투갈의 타이어시장 및 산업현황

金　　民* 譯

## 1. 배 경

제2차 세계대전중 중립국이었던 포르투갈은 많은 금과 외환을 보유하였었으나 문맹자가 많고 산업구조는 단순산업의 의존도가 높았었다. 2차대전후 정부의 수입규제 및 고관세 장벽의 보호 아래 산업은 발전하였다.

포르투갈은 거대한 제국으로서 Angola, Cape Verde, Mozambique, Guinea Bissau, Macau, Timor국을 식민지로 갖고 있었다. 포르투갈의 화폐인 에스쿠도(escudo)貨는 스위스의 프랑貨만큼이나 강하고 안정되어 있었으며, 1973년까지 은행금리가 1.7%로서 세계에서 가장 낮았었다.

그러나 10년 사이에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다. 1961년부터 시작된 식민지들의 독립전쟁은 국가의 인력과 재정을 고갈시키고 Salazar 독재정권은 국가의 信認度를 떨어뜨렸다.

이와 같은 상황은 1974년의 혁명으로 최고조에 달하여 독재정권은 사회주의체제로 바뀌었다. Angola와 Mozambique의 독립으로 150만명의 포르투갈인들이 돌아왔으며, 군대는 축소되고 실업률은 불과 몇개월 사이에 17%를 넘게 되었고, 6년동안에 정부는 16번이나 바뀌었다.

인플레와 환율의 붕괴는 사회적인 대변혁을 초래하고 한때 세계 제3위의 金保有國이었던 포르투갈은 에스쿠도貨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30%의 보유 金을 팔지 않으면 안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정권은 좌우로 시계추처럼 왔다갔다 하다가 1986년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나서 경제는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도의 GDP 증가율은 2.5%, 1996년도는 3%, 1997년도는 2.7%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타이어산업현황

### (1) 머릿말

1943년 7월 Conde(Count) da Covilhã와 미국 오하이오주 Akron시에 있는 General Tire는 20년간 타이어 독점생산에 관한 면허(Alvara)를 획득하였다. 동사는 이름을 Mabor라 짓고 1946년 4월 Oporto주의 북서쪽에 있는 Lousada공장에서 타이어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동사는 자전거용 타이어에서부터 트랙터용 타이어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였는데, 생산량의 1/3은 식민지국가에 수출하였다. 경쟁력이 강화되자 동사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높아져서 1952년 Mabor는 국내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꾸준히 성장하였다. 1985년 동사는 국제적인

* 大韓타이어工業協會 業務部長

기업과의 합작을 과시하고 이미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회사 이름을 Mabor-General로 바꾸었다.

General Tire와 Mabor의 합작사업의 성공이 타이어업계에 알려지자 Goodyear는 포르투갈 타이어시장에서 Goodyear 브랜드를 제조할 수 있도록 Mabor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자 Firestone은 정부를 설득하여 Mabor의 독점권을 10년으로 단축시키고 1956년에 그들의 Alcochete공장을 가동시켰다. Firestone은 포르투갈의 아프리카 식민지국가에 공격적인 판매활동을 개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Mabor는 Angola와 Mozambique에 공장을 세웠다. Firestone은 1988년 유럽의 공장재편시 Alcochete 공장을 폐쇄하였다.

포르투갈의 두번째 타이어 제조업체인 CAMAC(Companhia Nacional de Borrachas SA)는 국가금융지원을 받은 개인이 1967년에 설립하였다. 동사는 1976년 Oporto주 동남쪽에 있는 Estareja공장에서 생산을 개시하였다.

포르투갈에서 래디알 타이어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Mabor와 ITA인데 처음에는 綿코드를, 다음에는 레이온 코드를 사용하였다. 당시의 포르투갈 도로사정은 매우 열악하였는데 Jet Sport라는 브랜드의 이 타이어는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든 General Tire그룹 전체에서 성공한 제품이었다.

(2) **Mabor**(Continental Mabor Industria de Pneus SA)

Mabor는 1943년에 설립되어 타이어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1946년 4월이다. 원래 소유지분은 미국 오하이오주 Akron시에 있는 General Tire & Rubber사가 20%를, 그리고 70%는 Conde da Covilhã 백작이 가졌고 나머지 10%는 백작의 가족과 친구들이 소유하였다. 1970년 백작이 사망한 후 그의 부인이 사위를 후계자로 지명하였다. 사위인 Mário Quina 박사는 은행가였고 그의 가족은 Borges & Irmãos은행의 대주주들이었다.

1950년 Mabor의 대주주들은 Industria Textil do Ave SA(ITA)를 설립하였는데, 이 회사는 타이어 코드를 제조하였다. 처음에는 綿코드를, 다음에는 레이온, 나일론 순으로 생산하고, 현재는 스틸을 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의 현재 거래처는 포르투갈 타이어시장뿐만 아니라 Continental그룹의 회사도 포함되어 있다. 1972년 대주주인 Quina는 그의 주식을 은행에 매도하였고, 1974년 포르투갈의 은행이 국유화됨에 따라 Mabor사는 국영업체가 되었다.

1987년 국영기업체 및 은행의 민영화조치에 따라 정부는 그당시 Continental과 합병을 추진중인 General에게 Mabor의 인수를 종용하였다. General이 인수를 망설이는 사이에 타이어 제조경험이 없는 Amorim그룹의 회사가 매수를 하였으나, 경영에 성공하지 못하고 1989년 Continental이 Amorim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결국 Mabor는 Continental그룹의 계열사가 되었다.

포르투갈 정부의 도움으로 Continental은 EU로부터 유럽개발자금을 받아 최신설비를 갖춘 공장을 새로 지었다.

1993년에 가동을 시작한 이 공장의 생산능력은 1일 20,000개의 승용차용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는데, 1996년 6월이 되면 1일 24,000개까지 생산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생산되는 타이어는 Mabor, Continental, Semperit, Uniroyal, 그리고 Continental그룹과 계약을 맺은 기타 브랜

드로 판매되고 있다.

트럭 및 트랙터용 타이어는 Morocco에 있는 Continental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생산량의 90% 정도는 주로 스페인과 독일에 수출되고 있는데 일부는 포르투갈에 수출하는 차량에 장착되기도 한다.

Mabor사의 전체 종업원은 약 800명이고 1994년도 매출액은 72억에스쿠도(270만 달러)이다.

(3) **CNB-CAMAC**(Companhia Nacional de Borrachas SA)

CNB-CAMAC사는 Oporto주의 동남부 지역 Aveiro시 부근의 Estareja에 있으며, 1일 3,200개의 승용차용 및 트럭용 타이어 생산능력을 갖고 있다. 생산통계수치가 말하고 있듯이 이 회사는 1990~1993년에 판매부진을 겪고 현재 채권단의 재산관리상태에 있다.

이 회사의 재무상태가 호전되자면 새로운 투자 파트너가 생겨야 하며 그렇지 않는 한 생산증대를 위한 대규모 투자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회사가 문을 닫지 않는 것은 종업원 500명의 실직에 따른 심각한 정치적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동사는 생산량의 약 57%를 영국시장에 수출하고 있는데, 금년에 영국의 파운드貨가 에스쿠도貨에 비하여 8%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기타 시장은 스페인이 8%, 이스라엘 3%, 네덜란드, 핀란드, 독일 등이 11%이고, 국내시장은 23%에 불과하다.

1994년도의 매출액 270만달러중 수출이 78%를 차지하였는데, 1995년도에는 8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파운드貨 판매가 많아서 이익은 적을 것이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타이어의 종류는 승용차용이 75%, 소형트럭용이 16%, 트럭·버스용이 7%, 트랙터 등 기타 차량용이 2%이다.

(4) **재생타이어산업현황**

포르투갈의 재생타이어산업은 세계 제2차대전 후에 시작되었다. 재생타이어공장은 Lisbon 북쪽 약 100km 거리에 있는 공업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재생타이어조합에 속해 있는 제조업자는 50개 정도인데, Leiria지역에 있는 5개업체의 연간 총매출액이 100만달러를 조금 넘고, 50개업체중 60% 이상의 업체는 종업원수가 각각 6명 미만이다.

조합에 의하면 재생타이어업계의 수입규모가 1990년도 44억에스쿠도에서 1993년도에는 55억에스쿠도로 증가하였다. 조합이 밝힌 최근 연도인 1992년도의 재생타이어

〈표 1〉 CAMAC의 타이어 생산현황(1990~1995)

(단위 : 개)

| 연 도 | 생 산 량 |
|---|---|
| 1990 | 847,600 |
| 1991 | 462,600 |
| 1992 | 469,100 |
| 1993 | 376,200 |
| 1994 | 568,700 |
| 1995 | 710,875* |

*추정.
자료 : CAMAC

〈표 2〉 재생타이어 생산현황(1992)

(단위 : 개)

| 타이어 종류 | 생 산 량 |
|---|---|
| 승용차용 타이어 | 430,000 |
| 소형상용차용 타이어 | 360,000 |
| 대형상용차용 타이어 | 300,000 |
| 농기계용 및 기타 타이어 | 47,500 |
| 계 | 1,137,500 |

자료 : National Tyre Retreaders Industrial Association.

생산량은 〈표 2〉와 같다.

### 3. 타이어 생산현황

Continental Mabor 및 CAMAC사의 최근 생산량은 증가하였다. Mabor의 생산량은 1992년도 130만개에서 1995년도에는 500만개로 증가하였고 CAMAC는 1992년도 469,100개에서 1995년도에는 710,900개로 증가하였다. 이 두 회사는 승용차용 타이어 생산에 집중함으로써 생산효율이 높아졌다. CAMAC는 75%가 승용차용이고 Mabor는 96%나 된다.

### 4. 신차용 타이어시장

#### (1) 자동차 생산

포르투갈의 자동차 생산방식은 두가지로 대별되는데, 한가지는 50% 이상이 완전조립형태의 것과 또 한가지는 50% 이상의 부품을 포르투갈에서 생산하여 자동차를 제작하는 것이다.

전자의 방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는 General Motors가 1994년도에 조립한 것이 5만대이며, Renault가 5만대, Citroën이 2만대, Ford가 8천대이다.

후자의 방식으로서는 Palmela에 있는 Volkswagen-Ford Auto Europa공장에서 생산한 것인데 이 공장의 생산능력은 日産 464대로서 1995년도에 약 9만대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차용 타이어시장은 주로 Continental Mabor가 공급하고 있는데 Michelin은 Renault, GM, Citroën으로부터 OEM승인을 받았다. 수입품, 특히 아시아지역에서 저가로 수입되는 타이어와의 경쟁을 피해서 CAMAC와 Mabor는 수출에 주력해 왔다. Mabor는 Lemmerz와 51 : 49의 합작비율로 휠을 생산하여 Palmela에 있는 Auto Europa공장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 5. 교체용 타이어시장

#### (1) 자동차 보유대수

ACAP(Association of Automobile Dealers and Industrialists)에 의하면 포르투갈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323만대이다. 그러나 정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등록대수

〈표 3〉 자동차 사용대수현황(1994년말)

(단위 : 1,000대, %)

| 운행년수 | 승용차 | | 소형상용차 | | 버스 | | 트럭 | | 모터사이클 | |
|---|---|---|---|---|---|---|---|---|---|---|
| | 대수 | 비율 | 대수 | 비율 | 대수 | 비율 | 대수 | 비율 | 대수 | 비율 |
| 1년 이하 | 244.1 | 10.2 | 104.8 | 14.9 | 5.0 | 4.0 | 0.7 | 6.0 | 14.2 | 14.5 |
| 1~ 2년 | 249.4 | 10.4 | 81.2 | 11.5 | 9.0 | 7.2 | 0.8 | 6.7 | 18.1 | 18.5 |
| 2~ 3년 | 280.8 | 11.7 | 77.9 | 11.1 | 8.1 | 6.5 | 0.7 | 5.3 | 17.2 | 17.6 |
| 3~ 4년 | 229.5 | 9.6 | 64.8 | 9.2 | 9.0 | 7.2 | 0.6 | 4.5 | 10.4 | 10.6 |
| 4~ 5년 | 210.1 | 8.8 | 65.6 | 9.3 | 8.7 | 7.0 | 0.6 | 5.1 | 7.8 | 7.9 |
| 5~10년 | 736.6 | 30.7 | 190.0 | 27.0 | 32.6 | 26.1 | 2.0 | 15.6 | 23.5 | 24.0 |
| 10~15년 | 327.2 | 13.6 | 101.0 | 14.3 | 27.4 | 21.9 | 2.9 | 23.5 | 5.5 | 5.6 |
| 15~20년 | 117.4 | 4.9 | 18.9 | 2.7 | 16.0 | 12.8 | 2.3 | 18.4 | n/a | n/a |
| 20년 이상 | 5.1 | 0.2 | 0.6 | 0.1 | 9.0 | 7.2 | 1.9 | 14.9 | n/a | n/a |
| 계 | 2,400.0 | 100.0 | 705.0 | 100.0 | 125.0 | 100.0 | 12.5 | 100.0 | 98.0 | 100.0 |

자료 : ACAP

는 4,360,447대로 되어 있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차연령은 많은 OECD국가들보다 오래 되었다. 한편, 포르투갈은 자동차 사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며, 따라서 교체용 타이어시장 규모도 작다.

### (2) 시장점유율

시중의 타이어 브랜드는 63개인데, 이 가운데 Michelin이 시장쉐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Michelin의 시장점유율은 스페인 타이어시장에서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포르투갈에서는 상당히 열세이며 환태평양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저가품과의 경쟁이 치열하다.

판매형태별 시장점유율은 타이어전문점이 95%, 카딜러 2%, 하이퍼마켓 2%, 기타 1%로서 시장구조가 특정판매형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94년의 교체용 타이어 시장규모는 6.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6. 수출입규모

타이어 수입 및 수출규모는 생산과 국내 교체용 타이어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역규모는 금액기준으로는 입초이지만 수량기준으로는 수출이 수입보다 약 10%가 많다.

〈표 4〉 타이어 수출입규모

(단위 : 금액-100만에스쿠도, 수량-1,000개)

| 구분 \ 연도 | 타이어 종류 | 1993 수입 | 1993 수출 | 1994 수입 | 1994 수출 |
|---|---|---|---|---|---|
| 금액 | 전체 타이어 | 20,311 | 7,470 | 23,276 | 15,224 |
| | 신제타이어 | 20,013 | 7,292 | 22,799 | 14,979 |
| | 승용차용/소형상용차용 | 9,995 | 6,216 | 11,753 | 14,258 |
| | 대형상용차용 | 7,687 | 858 | 8,426 | 299 |
| | 모터사이클용 | 693 | 5 | 660 | 2 |
| | 자전거용 | 420 | 33 | 524 | 16 |
| | 중고타이어 | 298 | 177 | 478 | 244 |
| | 인너튜브 | 941 | 93 | 817 | 63 |
| 수량 | 승용차용/소형상용차용 | 4,137.7 | 1,696.1 | 4,836.7 | 3,734.1 |
| | 대형상용차용 | 565.7 | 30.3 | 636.8 | 13.0 |
| | 모터사이클용 | 427.9 | 2.4 | 367.1 | 2.3 |
| | 자전거용 | 1,225.2 | 62.9 | 1.548.5 | 24.0 |

자료 :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표 5〉 수출입증감률(1994)

(단위 : %)

| 타이어 종류 | 수 입 | 수 출 |
|---|---|---|
| 전체 타이어 | 14.6 | 103.8 |
| 전체 신제타이어 | 13.9 | 105.4 |
| 승용차용 타이어 | 15.8 | 129.3 |
| 트럭·버스용 타이어 | 9.6 | -65.2 |
| 모터사이클용 및 스쿠터용 타이어 | -4.8 | -54.3 |
| 중고타이어 | 60.4 | 37.8 |

자료 : 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 7. 타이어산업 전망

포르투갈의 타이어 생산시설능력 증가여지는 현재로서는 거의 없으나 Continental Mabor공장이 1996년도에 20% 증가할 것이고, CAMAC는 현재 시설을 풀가동하면 25% 정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AMAC는 부가가치가 높은 비도로용 차량 타이어의 시장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2년 후 교체용 타이어시장은 1991년, 1992년도의 신차용 타이어의 교체시기의 덕을 보게 될 것이나 장기적으로 보아 수요증가율은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Mabor와 CAMAC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수출규모도 커질 것이다.

자료 : EIU Rubber Trends 4th quarter 1995